

#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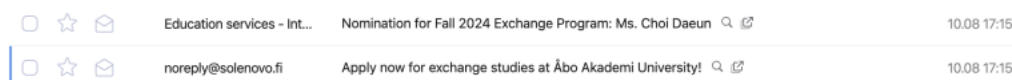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파견대학	Å BO AKADEMI UNIVERSITY
파견기간	2025년 1학기	파견국가	핀란드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이가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플리케이션 작성 (현지 대학 지원)입니다. 선발이 끝나고 나면 본교의 국제교류처에서 파견교로 노미네이션을 보내는데요. 이후 파견교에서 교환학생 본인에게 직접 어플리케이션 신청과 관련된 메일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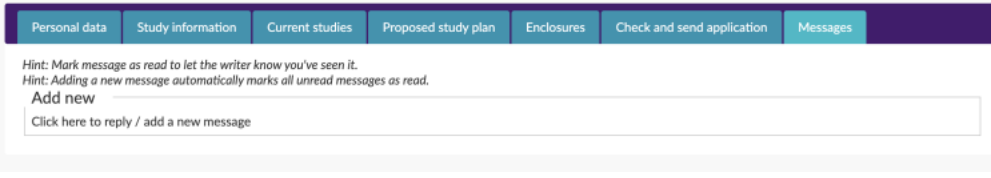
핀란드는 다른 유럽국에 비해 봄학기 개강이 빨라서 마감일도 빠릅니다. 저의 경우 9월 27일에 한림대학교로부터 교환학생 합격 통지를 받았고, Å BO 대학의 어플리케이션 마감일은 10월 15일이었습니다. (신청 당시 10월 8일까지 어플리케이션 신청 메일이 오지 않아 본교/파견교 국제교류팀으로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잘 해결되어 무사히 어플리케이션 메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Å BO AKADEMI 국제 교류처도 메일 답장이나 일처리가 정말 빠른 편이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플리케이션 안내 메일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Å BO AKADEMI의 경우 ‘soleMOVE’ 라는 사이트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합니다. 메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가이드를 따라 천천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personal data / study information / current studies / proposed study plan / enclosures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걸 아래에 적어둘게요.

1. Study information 탭에 튜터 신청 여부를 물어보는 칸이 있습니다. 이때 yes 라고 적어 주셔야 튜터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2. Å BO AKADEMI는 파견교에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파견교 재량) 대신 current studies 탭에 language proficiency를 적어야 합니다. Å BO AKADEMI에서 요구하는 최소 영어 레벨은 B2예요. 토익 800이상 이실 경우 그냥 B2로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3. proposed study plan 탭에서 수강할 과목을 적는데, 안내 메일에 개설 강좌를 어디서 보지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리스트에 있는 과목인데 개설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Å BO 국제교류처에서 수정하라는 연락을 줍니다.)



제출 후에 이상이 있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위에 보이는 messages 탭으로 연락이 옵니다. 메세지가 올 경우 메일로도 알림이 오니, 메일함 알림은 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나면 Å BO 측에서 잘 받았다는 확인 메일이 옵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신청은 끝이에요! 메일을 받고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지나면 입학허가서가 옵니다. (저는 10/10에 어플리케이션 최종 제출을 했고, 10/21에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핀란드의 경우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은 상당히 짧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개강이 매우 빠릅니다. 그러니 1학기에 파견을 가신다면, 선발이 되신 이후 준비를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요! ππ) 제가 갔던 2025년 봄학기 개강은 1월 9일이었고,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은 1월 3일에 시작했습니다. - 모든 일정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파견교에서 미리 공식 도착일을 알려줍니다! 저의 경우 1월 2일까지 투르쿠로 도착을 해야 했어요. 핀란드 땅에 발을 딛기 전까지,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기숙사 / 유학생 보험 / 비자 / 항공권 / 짐 싸기가 있습니다.

먼저 기숙사의 경우 파견교가 아닌 투르쿠 시에서 제공하는 학생 기숙사기 때문에 교환학생 지원과는 별개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학생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 답게 학생 기숙사 역시 가격도 싸고 시설도 좋습니다. (개인 화장실/방 - 공용 주방 옵션이 월 60만원) - 봄학기 파견이었던 저의 경우 기숙사 신청이 10월 1일에 열렸는데요. 시작 학기인 가을 학기에 비하면 경쟁률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열리자마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핀란드 기준으로 자정에 열리니, 대한민국 기준으로 새벽 6시에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학기 파견의 경우 5월 1일) 교환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숙사는 총 3가지 옵션이 있고,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한국 교환학생은 student village west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옵션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기숙사도 가본 적이 있는데, east나 iltakajo도 시설이 좋습니다. 기숙사 별 특징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덧붙여, 기숙사 신청을 위해서는 입학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작일이 10월 1일 (5월 1일) 이기 때문에 입학허가서가 나오기 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입학허가서는 추후에 첨부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유학생 보험의 경우 핀란드 교환학생은 대부분 'Swisscare'를 이용합니다. 핀란드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보험의 max sum이 12만 유로 이상이므로, 이 max sum에 맞춰 옵션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저는 comfort 플랜으로 선택했어요) 보험 기간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해서,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14일로 넉넉히 설정해 두었고 가격은 2024년 10월 기준 99유로였어요! 얇은 자리에서 결제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보험 가입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다운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 비자는 입학허가서가 나온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학허가서가 나오면 바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비자 신청 - 대면 인터뷰 - 발급까지 1달 정도 걸렸어요. (인터뷰 날짜를 언제로 잡는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제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고 빨리 잡을수록 좋습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여권 사본, 보험 가입 내역서 (영문), 유로 잔고 증명서 (영문), 입학허가서가 필요한데요. 이 중 유로 잔고 증명서의 경우 핀란드에 머무는 동안 사용할 경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10월까지의 달에 560유로였는데, 11월부터 800유로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핀란드의 봄학기는 1월부터 5월까지로 총 5달이니, 비자를 신청하실 때 계좌에 800\*5, 즉 4000유로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나면 비자 신청비도 결제할 수 있어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53만원이었습니다. (대면으로 결제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것이 싸니, 미리 결제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비자를 신청하고 나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핀란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

하게 되며, 날짜와 시간은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갈 때는 제출했던 서류들을 프린트하고, 비자에 들어 갈 증명사진을 함께 가져가시면 돼요.



핀란드 대사관에 방문하게 되면 귀여운 무민 동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ㅎㅎ).

항공권의 경우 국제학생증인 ISIC를 신청하고, ISIC에서 주관하는 항공편 예매 사이트 KISES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매할 당시 한국에서 핀란드를 직항으로 가는 비행편은 핀에어 뿐이었는데요. 핀에어는 학생할인을 받으면 23kg 수화물 추가가 무료입니다. 이 학생할인을 KISES에서 예매해야 받을 수 있어요. 봄학기 파견이지만 1월 개강이고, 4월 까지 눈이 내리니 두껍고 무거운 옷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와 옷을 많이 챙겨갔는데요. 여행을 다닐 때가 아니면 핀란드에서는 반팔을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 핀란드는 5월까지 최저기온 6도, 최고기온 17도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실 게 아니라면 여름옷은 최소한으로 챙겨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방에 히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많이 춥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꼭 가지고 오세요. 저도 부피가 커서 챙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없었으면 겨울 나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기숙사에 한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한식을 해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식은 많이 챙겨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햇반! 한두 개면 충분해요.) 외국에서 구하기 힘든 라면이나 다시다, 들기름, 육수 코인 등은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처음 헬싱키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공항에 있는 편의점 (R-KIOSKI)에서 유심을 살 수 있어요. 데이터 무제한 패키지를 달에 25유로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싱키에서 투르쿠까지는 기차(VR)로 2시간 정도 걸려요. 헬싱키 반타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왼쪽,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먼저 오는 거 타시면 돼요.) PASILA 역에서 내리신 뒤, 기차를 타고 KUPITTA 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KUPITTA 역과 TURKU 역 둘 다 투르쿠예요. (Student village west 기숙사에 사신다면 KUPITTA 역이 훨씬 가깝습니다.) 기차는 VR 어플을 통해 한국에서 미리 예매할 수 있어요.

### 3. 수업 정보 (분량: 1장)

저는 한림대학교에서 주전공으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복수전공으로 심리학과를 이수하고 있어 Faculty of arts, psychology and theology 전공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는데요. 주전공 수업 1개, 복수전공 수업 1개, 교양 수업 2개를 들었고, 총 20ects를 수강하였습니다. (한국 학점으로 환산하면 12학점입니다. 5ects=3학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Å BO AKADEMI는 투르쿠 대학교와 자매교류를 맺고 있어 교환학생 신분으로도 투르쿠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교환학생의 경우 전체 수강 과목의 50%는 Å BO AKADEMI의 과목이어야 하고, 50%는 제가 파견 가는

학과의 수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이 덕분에 훨씬 폭 넓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네 개 중 하나가 투르쿠 대학교 수업이었어요.

핀란드 대학교 수업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출석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출석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수업 중 cognitive psychology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세미나를 모두 참석해야만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석 점수가 들어가는 것과 별개로 필수 참여였어요!)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수업이 아니면 출석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제가 들었던 수업 중 두 개는 self-study 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책을 읽고, 이에 관련된 에세이를 제출하면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교재를 읽고 에세이를 제출하면 끝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비록 교재의 양이 방대하고 에세이의 양도 방대하지만 하루에 시간을 정해 조금씩 공부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었어요! 두 과목 중 하나는 16장의 최종 에세이, 하나는 4장씩 5개의 에세이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어진 교재만 꼼꼼히 읽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난이도가 엄청 높지 않아 들을 만했습니다.

둘 중 하나였던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critical perspectives 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문헌 3개와 논문 2개를 골라, 문헌 3개를 근거로 논문을 비판하는 에세이를 작성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른 유럽에서 듣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논문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다른 하나는 intercultural encounters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수업이었는데, 심리학과 수업이 아닌 문화 수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업이 제일 재밌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한 사람이 느낄 법한 감정을 잘 풀어낸 교재를 바탕으로 제 경험을 섞어 대체과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디어 전공 수업으로는 Visual sociology and anthropology 를 수강하였었는데요. 이미지와 사진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하나의 사건을 골라 관련된 사진을 200장 수집한 뒤 코딩을 거쳐,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최종 과제로 제출하면 되는 수업이었어요. 학생 수가 6명 밖에 되지 않는 소그룹 수업이었고, 일반적인 강의실이 아닌 특이한 구조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곳이 강의실이 아닌 줄 알았어요. (ㅋㅋㅋ)

수업은 강의실의 모양과 비슷하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는데요. 교수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수님이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듯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들어보기 힘들 굉장히 색다른 수업이었어요. (난이도는 제 기준에서 꽤 높았습니다. 매주 과제도 있었고, 토론 준비도 해야 했어요!)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시험이 있는 수업은 cognitive psychology 하나였습니다. 핀란드 시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학생이 시험실과 시간을 예약해서 시험을 보러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시험장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려 있었으며, 전자기기와 가방 등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또, 시험을 3번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공부를 더 해서 두 번째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을 맞아야 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시험 시간과 시험실 예약 역시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수업은 발표도 한 번 있었어요! 심리학 수업이라 용어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수업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핀란드 학교 수업에 만족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덕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제 속도대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핀란드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campus area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건물들이 다 조금씩 떨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학교다! 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듣기 전에, 내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은 어디 있느냐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엄청 동떨어져 있는 건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살았던 기숙사 student village west는 학교와 매우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가장 가까운 건물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 건물에서 각종 체육 수업, 심리학 수업 등이 열렸습니다.)

처음 오티를 들으러 가면 TUUDO 라는 어플을 깔게 됩니다. 이 어플을 통해 내가 듣는 수업 정보부터 시간표, 학식 메뉴, 도서관 위치 및 정보 등 캠퍼스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학식의 경우, 학식당이 꽤 많고 그날그날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어플로 그날그날 메뉴를 확인해 보고 가시면 좋아요. 학생증이 있으면 2.95유로에 학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외식 물가가 13-15유로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큰 복지요!) 기숙사 앞에도 식당이 있어서, 저는 밥 해먹기가 귀찮은 날 요긴하게 이용했습니다. ㅎㅎ



왼쪽은 학교 건물 안에 있는 식당이고, 오른쪽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 식당 음식이에요! (메뉴는 매일 다릅니다)

또, 아까 스치트 운동 수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 내부에 있는 운동 시설과 매일 진행되는 운동 수업도 일정 금액을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만 끊어서 이용하였었는데,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한 학기권을 끊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쌉니다. (한 달권으로 끊으면 23유로고, 한 학기로 끊으면 58유로) 한번 끊으면 모든 gym을 다 이용하실 수 있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운동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체육관은 보통 아침부터 밤까지 열려 있고, 운동 수업도 매일 시간대 별로 다양하게 열리니 꼭 이용해보세요! 저는 1-2월에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많이 했고, 날씨가 풀리는 4월부터는 걸어 다니거나, 대여용 자전거를 이용해 운동을 즐겼습니다. ㅎㅎ 대여용 자전거는 겨울철엔 운영하지 않고, 날이 풀리면 길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어플을 설치하면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와 조금 떨어진 곳에 prisma라는 24시간 대형마트가 있는데, 거기 갈 때 유용해요! 가격은 1시간에 2유로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교통의 경우, 오티를 들으러 가면 교통권 할인 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가지고 버스 회사인 Foli로 가시면 학생 교통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교통권이 있으면 버스를 1.95유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교통권은 3.15유로이니, 가급적 교통권을 빨리 발급 받으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던 1,2월에는 1달제 교통권을 결제했고, 날이 따뜻해 지고, 길이 익숙해져 자주 걸어 다닐 즈음에는 충전형으로 바꿔 이용했어요. (버스를 자주 타실 거라면 1달제를, 아니면 충전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지리도 잘 모르고, 날도 추워서 버스를 자주 탔기 때문에, 1달제가 훨씬 가성비 있어요!)



버스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드 커버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색깔도 고를 수 있어요.

또, 기숙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티룸 / 사우나 / chill room 이 있는데요. 파티룸의 경우 다 같이 모여서 요리를 해먹거나, 영화를 볼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미리 예약을 하면 되고, 예약은 TYS 라는 기숙사 어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다른 곳을 예약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어플입니다) 사우나도 마찬가지로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 건물에 설치되어 있고, 1시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1달에 최대 4회까지 예약 가능한데, 보통 친구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4회를 다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핀란드가 사우나로 매우 유명한 나라라 가정집에도 사우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좋으니 꼭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뿐만 아니라 투르크 외곽 지역에 있는 야외 사우나도 정말 좋아요!)



기숙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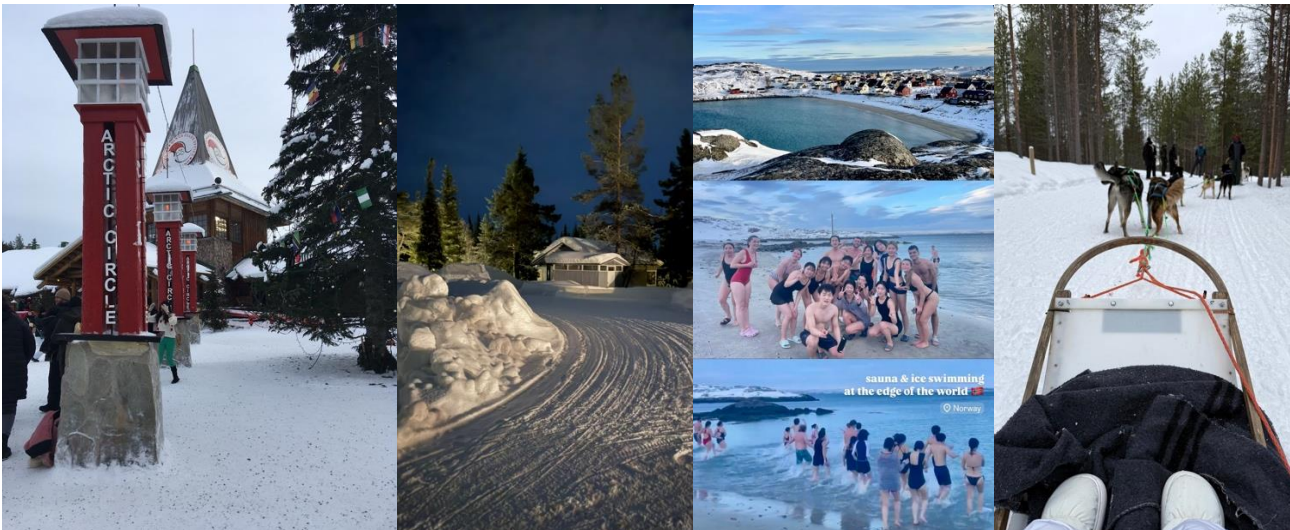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chill room은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자주 이용했던 곳인데요. Tys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코드를 신청하시면 출입 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학기 내내 그 코드를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보드게임도 할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집에서 공부가 안 될 때, 도서관까지 가고 싶지 않을 때 자주 갔습니다. ㅎㅎ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 무엇이였냐고 물어보면, 저는 오로라를 본 것과 라플란드를 다녀온 것이라고 말할 만큼 그 두 가지가 핀란드 교환학생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로라는 2-3월 사이에 가장 많이 관측됐고, 기숙사 바로 앞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오로라 관측 어플을 미리 깔아두고, 뜰 확률이 높다고 알림이 오면 바로 뛰쳐나가 한참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ㅎㅎ 교환학생을 하는 동안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북유럽 교환학생이어야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가시게 되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플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2-3시에도 뜨기 때문에 진짜 운이 중요해요! (저는 정작 라플란드 여행을 갔을 때는 못 봤습니다.)



(정말 아주 드물게 붉은 오로라도 보여요!)

라플란드 여행은 학교 esn에서 주관하는 여행이었는데요. 개인으로 가기 힘든 지역이라 교환학생을 가시면 꼭 esn 트립에 참여해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산타마을 관광, 허스키 썰매, 북극해 사우나, 크로스 컨트리 스키, 스노우슈 하이킹 등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액티비티를 가득 즐길 수 있어요. 제가 갔을 때에는 산타 마을이 있는 로바니에미를 거쳐 사리셀카라는 지역으로 갔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썰매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머무는 내내 정말 즐겁게 놀았어요. 버스를 타고 14시간이나 움직여야 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했던 모든 경험 중에 가장 좋았다고 꼽을 만큼 즐거웠어요.



###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핀란드는 학기가 5달인데다, 저는 학기가 끝난 뒤에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환학생에 비해 경비가 많이 든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북유럽의 물가와,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 100원 넘게 오른 환율도 (ㅠㅠ) 한몫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아껴 쓰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많이 썼습니다. 지출을 미리 기록해 놔야 할 것 같아서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는 버릇을 들였었는데, 덕분에 얼마나 썼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6개월 동안 준비비용을 포함해 총 2000만원을 사용했고, 그 중 700만원을 핀란드 5달 생활비 (고정 비용 포함)로 사용했습니다. 기숙사비가 매달 6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해 제외하면, 약 400만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외식을 거의 안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든 편이었습니다. 또 학기 중에도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생활비보다는 여행비 지출이 컸던 것 같아요.

준비 비용으로는 자잘한 서류비부터 비자 신청, 비행기표, 필요한 물품 구매 등등이 있었는데요. 비자 신청이 53만원으로 비싼 편이었고, 편도 비행기표가 90만원대였습니다. 이를 다 포함해서 200만원 가까이 지출했던 것 같아요.

생활비는 초기 정착 비용이 있다 보니 첫 달에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뒤로는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기숙사 389.33유로, 통신비 27.49유로를 고정 지출로 잡아두고 매달 계산했을 때, 첫 달을 제외하고 한 달에 130만원 안팎으

로 사용했습니다.

1월 지출 내역 및 총액 정리		2월 지출 목표 및 총액	
1월 📌 실제 : 672.32		2월 지출 예상(목표), 실제 총액	
기숙사비	389.33 + 60 = 449.33	기숙사비	389.33
etc (학생회비, 패키지 등)	34.5 + 70 + 10 = 114.5	etc (학생회비, 패키지 등)	0
고정지출 (운동, 핸드폰, 교통)	31 + 27.49 + 40 = 98.49	고정지출 (핸드폰, 운동, 교통)	27.49 + 26.3 = 53.79
빨래 카드 충전	10	빨래 카드 충전	18
2월 📌 실제 : 695		2월 📌 실제 : 387.75	
식료품 장	251	식료품 장	150 (-101) / 175.24
생필품	91	생필품	50 (-41) / 6.85
쇼핑	97	쇼핑	70 (-27) / 70
그 외 교통	62	그 외 교통	0 (-62) / 0
외식 (디저트 + 식사 + 술)	122	외식	70 (-52) / 80.06
etc	72	etc	23 (-49) / 55.6
= 실제 총계 -> 약 1367 유로 = 205만원		= 실제 총계 -> 848.87유로 = 약 128만원	

왼쪽이 1월, 오른쪽이 2월입니다. 3,4,5월은 다 2월과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로 작성해둔 거예요!)

핀란드는 유럽 내륙과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니려면 배나 비행기를 무조건 타야 하는데요. 이것마저도 배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매우 한정적이라,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탔었습니다. 그래서 여행비가 다른 교환학생에 비해 많이 들었어요. 또, 저는 교환학생이 끝난 후에도 6월 한 달을 더 여행했기 때문에 여행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1달에 2번 정도, 핀란드를 포함해 총 10개국 20개 도시를 여행했어요. 학기 중 여행으로는 750만 원 정도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난 뒤 1달 여행으로 동유럽 3개국과 독일에 머물며 대략 250만 원을 사용했어요. 여기에 귀국 비행기편 (출국과 비슷한 값이었습니다) 까지 포함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6. 자기평가 (분량: 1~2장)

교환학생을 하며 가장 성장한 부분은 언어 사용에 대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은 영어 실력 때문에 대화가 어렵게 느껴졌고, 말하기를 주저했었는데요. 같은 기숙사 층에 사는 친구들과 말문을 트고,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일상생활에 익숙해진 뒤로는 조금 어려워도 그냥 해보자! 하는 용기가 생겼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조금의 실수가 있어도 대화에 큰 문제가 없고, 소통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는 소통의 도구로 영어를 자연스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친해진 이후에는 기숙사에 모여 같이 음식을 해먹거나, 대회 응원을 가거나, 파티를 가며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권 친구들부터,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의 친구를 사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독립성과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이 떨어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일부터 시작해 혼자 여행을 가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까지. 다양한 면에서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나의 일상을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생활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서 해외 여행을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험도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생활력을 기르고, 독립심을 기르는 경험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또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교환학생 온 걸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한국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이어 나가며 지쳤었던 제게 교환학생은 일종의 휴식이자, 여유를 찾을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며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조급함과 불안함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세상을 보는 눈도 정말 넓어졌어요. 다양한 것을 보고, 겪으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 또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디든 혼자서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만 머물렀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값진 순간을 많이 체험했고, 또 얻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 세웠던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공을 탐구하고 싶었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리고 싶었으며, 여유로운 삶과 여행을 통해 활발한 하루하루를 즐기고 싶었어요. 보고서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썼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수업을 생각보다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집에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고, 기대와 함께 들었던 수업은 가끔 절반도 알아듣지 못해 힘들기도 했어요. 또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도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기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고요. 돈과 경험의 경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 도착해 이곳에 적응하기까지 겪었던 어려움도 있었고요. ‘다들 잘 지내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같은 한국 교환학생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 덕분이었어요.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제 상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변수가 있어 더욱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잘 모르던 핀란드라는 나라도, 유럽이라는 대륙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탐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무조건 교환학생을 올 것 같습니다.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 복수전공, 졸업요건, 어학능력, 재정적 부담 등